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Improvement in Quality of people's Life

21세기는 환경과 정보의 세계이다. 환경은 인류 생존을 위한 지구적이고 가치적인 대안이며 정보는 생산과 경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본주의적 욕망의 끝없는 경쟁과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도시도 마찬가지이다.

환경과 정보와 이를 담는 틀로서의 자본은 가치와 도구와 욕망이라는 세 축으로 인류의 모든 삶을 지배한다. 즉, 생존과 발전을 위한 거대 경쟁 혹은 미시 경쟁 속에서 국가든 도시든 개인이든 이러한 환경과 정보와 자본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건축계도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많은 집단적인 선택은 자칫 잘못하면 분파주의와 순수주의의 주장으로 흐를 수 있다. 많은 국제적 분쟁과 국가 또는 사회단체 간 심각한 대립이 그것을 보여준다. 우리 건축계도 그러한 사회적 흐름 안에서 같은 고민을 해 왔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풀어 놓고 해결을 하기 위해 수년간 실제적 논의를 해 왔다. 이를 통해 이미 겪어 온 오류의 전철을 밟지 않고 현안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서로를 희생하고 양보하는 대화와 소통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화와 소통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미래의 건축과 우리 후배들을 위한 토대가 지금 필요하다. 그 기초를 기반으로 건축의 위상을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하고, 세계적인 건축가를 더 많이 배출해야 하며, 많은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당당함과 미래의 비전을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건축계는 사회적, 국가적, 개인적인 심각한 어려움에 대한 극복과 가치적인 선택을 위하여 분파적이고 순결주의적 주장을 극복하고 대화와 소통의 열린 마음으로 단체 통합을 위한 합의에 첫발을 내딛었다.

잘 알다시피 건축은 문화예술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복합적이며 입체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제 단체가 법인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도 정부조직에 맞추어 건축단체가 분리하여 존재 운영될 수밖에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 건축의 본질대로 건축단체가 존재 운영될 수가 없었다. 이에 건축계는 세계적인, 그러면서도 국가적이고 또한 개인적인 제 문제에 대하여 전략적이고 가치적인 통합을 선택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건축의 문화예술과 제도정책의 핵심적인 두 분야의 통합을 정부의 두 부처 동시 등록이라는 현실로 풀어갈 수 있게 된 것은 한 국적 현실을 뛰어넘은 변화의 모습이다. 이를 통해 문화와 제도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비로소 세계적이면서 국가, 도시 개인의 궁극적 과제인 환경의 가치 실현, 정보의 도구 활용 및 교류, 그리고 자본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패러다임적 전환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

무엇보다도 건축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즉,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계는 최우선적인 목적의식을 가져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 우리 건축계가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계승해야 할 것과 개선해야 할 것들을 명확히 하는 자성을 통해 건축 활동은 국가와 환경을 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고귀한 작업임을 재인식하여 사회단체로서의 그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둘째, 건축 또는 건축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축을 건설과 개발을 위해 발생되는 예측된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를 표현하는 예술 행위로서의 가치로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에 입각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에 입각한 국가의 정책방향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 고유한 건축문화를 브랜드화하고 창발적 사고를 통한 건축공간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 자손들을 위한 삶의 터전을 보다 풍요롭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건축이 그 가치창조의 속성과는 달리 비추어졌거나 또는 왜곡된 요소의 함으로 존재해 왔다면 이제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하여 부단한 자기 노력을 바탕으로 대정부, 대관, 대민 활동을 펴 나감으로써 사회, 역사,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김창수 / Kim, Chang-soo
(사)한국건축가협회 회장

- 약력**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대학 공학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부회장
 - 한국지하공간협회 이사
 - 한국철강협회 이사
 - 서울시, 건교부, 한국토지공사 다수의 자문 위원 역임